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민환



영화감독 정지영이 단돈 5억 원으로 영화를 만든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느낌이 쓰쓰쓰했다. ‘하얀 전쟁’과 ‘남부군’이라는 문제작을 낸 남 노장에게 충분한 제작비를 대기 어려운 영화계 사정도 안타까웠지만, 전하의 정 감독이 그런 적은 돈으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영화를 만들고 표표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안쓰러웠다.

그러나 그건 기우였다. ‘부러진 화살’은 관객 2백만을 돌파하며 최고의 화제작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부러진 화살’은 영화 자체가 수작(秀作)이다. 아미추어이긴 하나 영화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정지영 영화에 대해 조금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정 감독은 벗어져서 도입부와 종결부에 군더더기를 걸들여 스스로 맛을 떨어트리곤 했다.

그런데 이번 영화 ‘부러진 화살’은 전혀 달랐다. 이 영화는 차치 지루해질 수 있는 법정영화를 긴박감 있고 사설적으로 연출

해냈다. 우리나라에서 이만한 법정영화는 처음이 아닌가 한다.

이 영화는 법정영화라는 장르와 관계없이 정 감독의 대표작으로 꼽을 만하다. 그는 오랜만에 메가폰을 잡았지만 우리로

칠 전에 MBC-TV의 ‘백분토론’에 참여한 두 법조인의 태도에서 그런 시각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변호사 두 분은 이 영화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 분은 더 나아가 이 영화가 의학적으로 법조인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핏대를 세웠다. 법조인의 눈으로는 전혀 사실이 아닌데 많은 관객은 왜 모든

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끼까?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이유 말고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 법조인이 상정하는 사실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를

‘부러진 화살’과 사실

하여금 명불허전(名不虛傳)이라는 성어를 실감나게 만들었다.

이 영화의 최대 강점은 사실감이다. 영화란 본질적으로 하구인데 관객은 너 나 없이 이 영화를 사실로 느낀다. 감독이나 제작진이 이 영화의 95% 이상이 사실이라고 주장해 사실감을 한 겹 더 두텁게 만들었다. 하구를 사실로 느끼게 한다면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말 이외에 덧붙일 말이 없다.

그러나 이 영화의 사실감 때문에 일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며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법조인은 법리라는 전문적인 차대로 사건을 평가한다. 법리로 치면 ‘부러진 화살’은 거짓부정성이 있지는 모른다. 피고가 자제하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혈흔이 판사의 것인지, 아닌지를 가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물음에 법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피고가 판문에 불만을 품고 석권을 들었다면 법리로는 도저히 융합할 수 없을 것이다. 감독이 피고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 자체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의 눈에 그런 법리적 사실은 전부가 아니다. 그들은 내용(content)보다는 맥락(context)에 주목한다. 영화에 나오는 교수는 입시문제가 틀린 사실을 지적했다가 학교에서 쫓겨났다. 어디서 한 번 잘리면 어디서도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우리 상황을 감안하면 해임은 지나친 조치였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에 따라 그의 복직을 막았다. 일반인은 밥줄을 끊어놓은 판사를 석궁으로 응징하고자 한 교수의 감정에 응근히 공감한다. 석궁을 쏘아 그 정도 상처를 냈다고 해서 교수에게 중죄를 내리도록 분위기를 몰아 간 법원당국의 처사는 일반인 정서로는 지나치다. 교수에게 그 흔한 사면조차 없었다면 그것도 냉혹하다.

법리에 충실히하고자 하는 법조인을 욕해서는 안 된다. 법조인이 법리마저 팽개친다면 그건 큰 일이다. 그렇다고 법리로만 사실 여부를 가리려는 태도 역시 온전치 않다. 일반인은 법리에 대해 유연하고, 법조인은 일반인의 정서를 헤아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접근할 때 우리는 사실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대 명예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편지 ⑨



박행순

네팔에 살 수 없이 많은 대학이 있다. 모두 정부 인가를 받은 정식 대학교이고 4년제 일반대학 외에 10+2라는 2년제 전문대학이 대다수이다. 우리나라가 12년제 교육제도를 생각하면 이 전문대학들은 고2, 3 수준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네팔의 교육은 3년 과정의 유치원부터 시작하며 아이가 못 따라가면, 유급까지 시킨다고 한다. 서너 살로 보이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커다란 가방을 메고 부모 손에 이끌리며 유치원에 다닌다.

소망의 집 아이들

는 것이 양증맞고 귀엽지만 한편 안쓰럽기도 하다. 국공립의 유치원과 학교는 수업료가 저렴하지만 질이 떨어진다고 부모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자녀를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어한다.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시키고자 하는 부모 마음은 우리나라 네팔이 똑같은 것 같다.

일부 대학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은 아주 열심히 공부한다. 모든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국가 재정과 국민 소득 수준에 비하면 대학 등록금은 엄청나게 비싸다. 장학제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부자집 자녀가 아니라면 대학에 다니기가 어렵고 또한 카스트 계급제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해도 현실에는 엄연히 존재한다. 부의부, 빈익빈의 악순환과 숙명적인 신분계급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과 천민들은 대를 이어 천민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 같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고아나 버려진 아이들, 가난한 가정, 그리고 카스트가 낮은 계급의 자녀를 교육

착해서 마중 나온 교수와 함께 대학으로 가는 공항으로 차는 교통체증으로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이때 차창으로 손을 들이밀며 한 푼을 구걸하는 어린 걸인의 애처로운 얼굴이 네팔인의 첫인상으로 내 기억에 남아있다. 수없이 달려들 다른 걸인들 때문에 한 푼을 동정하는 것은 금물이고 그냥 고개를 돌리거나 둔이 없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딱한 상황을 앞에서 지켜보면서 차잡한 생각이 들었다.

시내 중심가의 식당 문 앞에서 어린 걸인들은 입구를 막아서며 때 묻은 얼굴,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한 푼을 구걸한다. 이들은 행벌이 일 수도 있고 가족을 위해서 길거리에 나오기도 한다. 교육도 받지 못하고 미래가 없이 하루하루를 구걸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고아나 버려진 아이들, 가난한 가정, 그리고 카스트가 낮은 계급의 자녀를 교육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벼어나게 하는 유일한 기회이다. 어떤 이는 슬럼가 아이들을 물보고, 순천의 SOS 마을의 대안가정처럼 명 미만의 고아들을 돌보는 교민 가정을 방문하기도 했다.

특히 치후원의 이해덕·조현경 선교사 부부가 운영하는 소망의 집(House of Hope, www.4891.co.kr)을 방문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이 돌보는 440명의 아이는 네팔어와 영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한국어도 배운다. 조현경 사모는 아이들의 ‘마마(엄마)’일 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마마”라고 부르며 존경한다. 소망의 집 아이들은 매일 새벽 각자의 목표와 비전을 말하고 자신들이 ‘네팔의 미래, 네팔의 희망’이라고 큰 소리로 외친 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이들은 의식주가 해결되고 사랑과 신앙으로 길러지며 좋은 교육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서인지 구걸하는 길거리 아이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당당하고 밝고 명랑한 얼굴들이었다. 나는 진정 이 아이들에게서 건강한 네팔의 미래, 네팔의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전남대학교 명예교수·파탄의대 객원교수〉

물건은 팔아서 얻은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의 다양한 공연과 추억의 사진첩을 영상으로 감상하며 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의 글을 올리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다행히도 모 초등학교에서는 졸업생 개개인이 작성한 미래의 꿈과 비전을 담은 포트폴리오 형식의 결과물을 졸업식 날에 전시 발표하고 있다.

필자가 개교 때부터 학교폭력대책자차위원으로 활동하며,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수완중학교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졸업 가을 만들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준비한 뮤지컬, 졸업생들의 1년간 활동 모습을 영상화하고, 재학생·밴드부와 국악관현악단의 졸업 축하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고한다.

이처럼 행사 준비기간에 학생과 선생님 간의 정이 더욱 둔독해진 추억의 졸업식이 애발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일이 확산되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졸업식 뒤풀이로 인한 불상사는 막을 수 있다.

미래의 일꾼,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사랑과 용기, 나눔과 배려를 일깨워 주는 추억을 머금은 졸업식, 아름다운 문화축제가 되는 졸업식 뒤풀이로 되길 바란다.

〈아름다운가게 광주 첨단점 운영위원장〉

대학 인식과 견해가 너무나 심해 아이를 선뜻 출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도 성인 미혼모가 아닌 고교생이 더욱 그렇 것이다.

아직까지 성문제와 관련해선 터놓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 배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가 없어 임신 등으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10대 청소년의 경우 피임 상식을 잘 몰라 성관계가 임신 혹은 임신 중절 수술로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다.

사실 우리나라 성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에서 성교육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이를 뒷

미혼모 사회문제 심각…가정 성교육 절실히

“얼마 전 여자 친구와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여자 친구 말로는 지금쯤이면 고민과 상담 내용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글을 올린 남성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다. 이 사례에서 보듯 흔한 전 낙태, 특히 청소년의 낙태와 고민문제가 시급한 사회문제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라도 아이를 지우지 말고 꼭 낳아서 잘 길러준다면 국가 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제도가 완벽하지 못하고, 특히나 사회적으로 미혼모에

고민과 상담 내용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글을 올린 남성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다. 이 사례에서 보듯 흔한 전 낙태, 특히 청소년의 낙태와 고민문제가 시급한 사회문제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라도 아이를 지우지 말고 꼭 낳아서 잘 길러준다면 국가 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제도가 완벽하지 못하고, 특히나 사회적으로 미혼모에

받침하지 못하는 점이라 한다.

학교에서 건전한 성관계, 즉 피임에 대한 교육을 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지만 집에선 아직도 순경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더 강해 학교 교육과 가정에서의 성교육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잘못된 피임 상식을 배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면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정 나이가 된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피임법 등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권윤영·광주시 서구 치평동

시설

학교폭력 정부대책 보완·수정 필요하다

정부가 6일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법정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대구와 광주에서 중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한 한 달 만의 일이다. 이번 대책은 교장·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면서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 내부도록 분위기를 몰아 간 법원당국의 처사는 일반인 정서로는 지나치다. 교수에게 그 흔한 사면조차 없었다면 그것도 냉혹하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에 따라 그의 복직을 막았다. 일반인은 밥줄을 끊어놓은 판사를 석궁으로 응징하고자 한 교수의 감정에 응근히 공감한다. 석궁을 쏘아 그 정도 상처를 냈다고 해서 교수에게 중죄를 내리도록 하고 경찰의 직접 개입과 해당 학부모에 대한 책임 등을 의무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2명의 교사가 공동 책임지는 복수집임제 도입과 함께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즉각 출석 정지 및 전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가해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를 통해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학생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반입 또는 사용 금지 등이 서울·경기·광주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 교단의 혼란도 우려된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정도로 뿌리 깊다. 그만큼 각각의 종합대책은 물론 지속적 실천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한 책임을 뒀다.

이번 대책은 큰 틀에서 볼 때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수정·보완해 차질 없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신고체계는 117로 일원화하되, 일진 등 학교폭력서를 경찰이 감독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도 통일되며,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자녀와 특별교育 등 연대책임도 물어べき 것이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정도로 뿌리 깊다. 그만큼 각각의 종합대책은 물론 지속적 실천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한 책임을 뒀다.

광주 총인시설 비리의혹과 관련, 대림산업 간부가 구속되는 등 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품로비 정황이 담긴 2차 문건까지 제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은 물론 ‘검은 거래’를 언급한 녹취록 내용이 수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선정 무효’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시공사인 대림산업과 심사위원 및 관련 공무원들이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내용을 담은 A4용지 2장의 추가 문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문건은 지난해 말 녹취록과 함께 참여자 21인에 걸쳐 제출한 것으로, 최근 구속된 대림산업 윤 모 상무가 금품 전달에 중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 6명과 공무원 9명을 비롯해 시공사 선정 무효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찰도 추가 폭로된 문건내용 등을 철저히 수사해 담합 비리의혹을 명백히 하려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라고 밝혔다.

종정은 또 “분반좌가 없었다면 공부가 모자람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더욱 용맹심을 내어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안거는 음력 시월 보름날부터 이듬해 정월 보름날까지, 승려들이 도에 정진하는 일을 일컫는다. 음력 사월 보름부터 칠월 보름까지는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는 하안거(夏安居)가 있다.

승려들은 평소에도 수행을 계획하지 않지만 하안거나 동안거에는 더욱 용맹정진한다. 이 기간에 승려들은 일절 외부 출입을 끊고 참선수행에 전념하며 부단히 도를 닦는다. 하안거나 동안거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 사이 무엇을 깨달았느냐에 따라 수도생활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해제 법어에서 “동안거 90일 동안 열심히 정진한 납자(수행승)는 해제 후 만행길에서 분반좌(법좌)를 반석 나눠 앉는다는 말로 지혜와 마음을 나눈다는 뜻”에 조계종

방실입 없는 선지식을 만나게 될 것”이다.

동안거에 참여했던 스님들은 그동안의 깨달음을 밟고 또다시 수행을 떠난다.

속세 사람들에게 동안거 해제 시기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동안거가 끝나는 시점에 입춘(4일)이 맞닿아 있어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계절을 맞는 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봄 문턱까지는 한두 차례 강주위가 엄습할 것으로 예보됐지만 다가오는 봄을 막